

전소민 "'런닝맨' 하차 후 카페 알바...수입 공백 걱정"

등록 2026.05.18 09:37:02



[서울=뉴시스] 전소민. (사진 = 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2026.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전소민이 '런닝맨' 하차 후 고정 수입을 얻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17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전소민이 출연했다.

이날 서장훈은 "전소민씨가 '런닝맨'을 그만두고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다던데"라고 언급했다.

전소민은 "친한 오빠가 카페를 해서 잠깐 알바를 했다"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고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되니까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이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저축해놓은 돈은 있지만 앞으로 언제 수입이 발생할지 몰라서 조금이라도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자 알바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장훈이 "모자랑 마스크를 안 쓰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 하자 전소민은 "카운터에서 음료를 드릴 때 가게 홍보를 하는 의도였다"고 답했다.